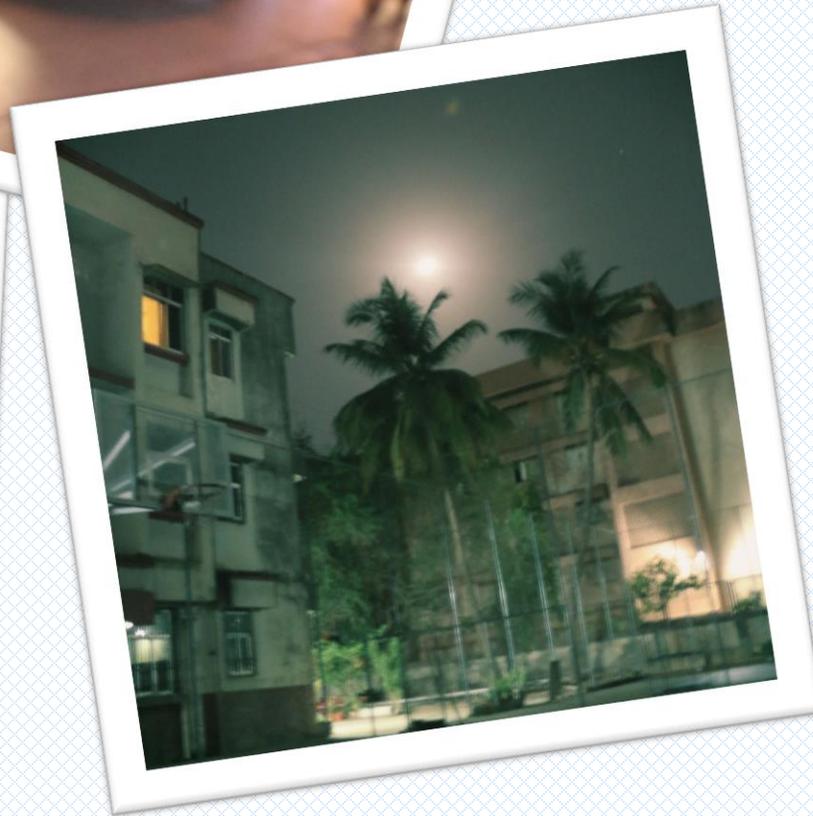




사앗 사앗,
뜨거웠던 오월 이야기

순서

- 일정표
- 활동내용
 - 캠프
 - 중간평가
 - 삼오공캠페인
 - 도비가트
- 생활
- 개인에세이



5월 일정

Sun	Mon	Tue	Wed	Thu	Fri	Sat
	4	5	6	7	8	9
	Day camp @ Bandra & Navi	Day Camp @ Colaba & Proctor	Day Camp @ Andheri	캠프 준비	캠프 DAY 1	캠프 DAY 2
10	11	12	13	14	15	16
캠프 DAY 3	캠프 DAY 4	캠프 DAY 5	캠프 DAY 6	캠프 DAY 7	OFF - DAY	중간평가 준비
17	18	19	20	21	22	23
EQUAL STREET 답사/ 350PPM 캠페인 준비	MEETING @ GHATKOPAR / 중간평가준비	중간평가 연기!!!!	MEETING @ O.R.D. / DHOBI GHAT	KOREAN FOOD PARTY @ DHOBI GHAT	POST CAMP MEETING @ IH	350 PPM 캠페인 준비 WITH MANISH & RAHUL
24	25	26	27	28	29	30
EQUAL STREET 답사/ 350PPM 캠페인 준비	350PPM 캠페인 준비	350PPM 캠페인 준비 / HALF-OFF DAY	350PPM 캠페인 준비 / 인도 전통 옷 쇼핑	중간평가 시작! (~6/1)	중간평가 2일차	이사 / 중간평가 3일차
31	6/1	2	3	4		
350Campaign D-DAY! / 중간평가 4일차	중간평가 5일차	이사 뒷정리	KAMATHIPURA	DHOBI GHAT		

캠프

우리는 오월에 두 번의 날시 캠프와 다섯 번의 데이캠프에 참가하였다. 뭄바이의 여섯 개의 브랜치에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캠프가 열렸다. 우리는 3일간 각 브랜치를 돌면서 350PPM, 그리고 몇 가지 한국게임을 진행했다. 날시 캠프는 3월 보고서에도 있듯, 뭄바이 도심을 벗어나 차로 5~6시간 정도 떨어진 한 시골마을에 가서 청소년들과 함께 4박 5일간 먹고, 자고, 놀고, 보고, 즐기는 활동이다. 우리는 오월 한 달간 두 개의 날시 캠프에 참가했다.

사실 캠프 전, 캠프에 가서 많은 인도 청소년들을 만나고, 또 사귀는 것들이 마냥 즐겁기도 하지만 두 번의 연이은 캠프일정(9일)이 너무 길어 체력적으로 힘들까 걱정하기도 하고, 또 '우리 활동의 흐름을 끊으면서까지 가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와의 미팅에서 이러한 우리들의 고충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현지에서 350PPM 프로젝트를 몹시 중요시 여기고 있고,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캠프에서 350PPM 세션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리오의 말에 두 캠프 모두를 가기로 결정했다.





데이캠프

5월 4일에는 반드라, 그리고 나비뭍바이 브랜치의 데이캠프에서 세션을 진행했다. 반드라에서는 아자드, 그리고 디파가 세션을 진행했다. 반드라에는 프로젝터나 각종 장비들이 없어 직접 전지에 그린 지구 그림과, CO2 그림을 이용해서 세션을 진행했다. 아이들이 옹기종기 둘러앉아 그림을 보며 설명을 들었는데, 단란한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나비뭍바이에서는 아자드와 다라가 세션을 진행했다. 나비뭍바이에는 캠프의 '빅대디'로 불리는 크리스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브랜치 데이캠프에서는 볼он티어의 수가 2-5명 정도였는데, 나비뭍바이에서만 20명이 넘는 볼он티어들이 있었다. 볼он티어 수가 많기에 더욱 진행이 쉬울 것이라 기대했었으나, 볼он티어들이 캠퍼에 비해 너무 많아 오히려 진행에 방해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활동 내내 볼он티어들도, 캠퍼들도 다라와 아자드가 진행하는 세션에 즐겁게 참여하였고, 이날 세션을 들은 볼он티어들이 후에 350PPM 캠페인에서 사람들에게 350PPM에 대해 설명을 하는 등 많은 활약을 하기도 했다.

5월 5일에는 콜라바와 프록터 브랜치의 데이캠프에서 세션을 진행했다. 콜라바에서는 디파와 사친이 세션을 진행하였다. 이곳에는 최첨단의 장비들을 준비해두어서 장비에 대한 문제나, 부족함 없이 원활하게 세션을 할 수 있었다. 세션 후 마지막에 '오늘 무엇을 배웠나요?'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아이들이 우리가 한 활동, 그리고 알려준 정보들을 정확히 이해한 답변들이 나와서 무척 뿌듯했다. 그리고 프록터에서는 다라와 사친이 세션을 진행했는데, 우리 세션만 진행하고 끝나는 다른 브랜치와는 달리 이곳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기도 하고, 휴식시간에 함께 해서 그런지 수영하고 몹시 피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반응이 몹시 좋았다. 아이들이 진정으로 세션을 즐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데이캠프

5월 6일, 보리밭리 브랜치 세션이 취소되어 안데리 브랜치에서 다라와 디파가 세션을 진행하였다. 세션 내내 아이들의 집중도가 높았고, 세션 후에 아이들이 우리들에게 ‘포도를 먹는데 왜 탄소배출이 되는가?’ ‘해수면이 10cm정도 상승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큰 양인가?’ 와 같은 다른 브랜치에서 듣지 못했던 날카로운 질문들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여태까지 세션을 진행하면서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것을 한번 더 배운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 여겨 350PPM 강의에 대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던 디파가, 안데리에서 세션을 진행 할 때 청각 장애를 가진 아이가 처음 배운 내용인 듯 우리들의 PPT를 보고 내용을 혼자서 중얼거리기도 하고, 자신이 배출한 CO2 양을 계산하고, 또 놀래고, 앞으로 양을 줄여야겠다는 말을 것을 보고 크게 감동하기도 했다.

데이캠프를 통해 각 브랜치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좋았고, 활동 내내 3월 캠프에 비해 강압적이지도, 강요하지도 않은 즐겁고 재미있는 분위기로 350ppm 세션을 진행할 수 있어서 좋았다.



닐시캠프

첫번째 캠프는 중학생 120명 정도가 참가했다. 이 캠프에서 우리는 350PPM 세션과, 한국게임을 진행했다. 그리고 그 외의 각 종 새로운 액티비티 (벨리크로싱, 로펠링)들을 참가하면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국 게임은 60명씩 2시간, 2번을 진행했다. 사실 캠프 전 우리가 받은 스케줄에는 60명씩 1시간, 2번 진행하는 걸로 적혀져 있었으나, 캠프 당일 일정이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급하게 ‘발빠기 게임’을 추가하기도 했다. 아자드와 디파가 신문지게임과 발빠기 게임을 진행하였고, 사친과 다라는 몸으로 말해요 게임을 진행하였다. 전반적으로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아이들은 Awesome한 게임, 혹은 정말 즐거웠다며 우리들에게 따로 와서 이야기 할 만큼 게임을 좋아했지만, 다소 소극적이고 부끄러움을 타는아이들에게는 조금 힘들었는지 활동하는 내내 겉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350PPM 세션은 Azad(도원)와 Deepa(나영)가 진행하였는데, 그 전 3월 캠프에서 350PPM 강의 후 진행했던 ‘재생노트만들기활동’ 에서 ‘그룹별 O/X 퀴즈’로 방식을 조금 수정하여 진행하였다. 각 문제마다 조별로 토의하는 시간을 짧게 주었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조장들에게 물어보기도 하였다. 사실, 디파가 영어로 350PPM 세션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지레 겁을 먹고 부담스러워 했었는데, 이를 본 각 팀원들이 조금씩 분량을 조금 조정해주는 식으로 배려를 해주었다. 조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덕분인지 디파는 세션중 가끔 애드립을 치기도 하고, 세션을 진행할 때 한층 여유로워졌다. 세션 후 한 볼он티어와 관계자가 말하는 것을 엿들었는데, 3월 캠프보다 낫다나 뭐라나~



닐시캠프

그리고 이번 캠프에서 가장 큰 수확은 사친이 인기가 많다 못해 정말 터졌다는 사실이다. 수 많은 여자아이들이 사친의 팬클럽을 만들어 사친을 독차지하려고 애썼고, 이러한 과정속에서 약간의 불꽃튀는 신경전도 일어났다.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사친은 부끄러워 하면서도 이 상황을 몹시 즐긴 듯 하다.

첫번째 캠프의 4박5일 일정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4박 5일의 캠프 일정이 시작되었다. 고등학생 70명, 초등학생 70명이 참가한 두번째 캠프에는 ‘테쿰’이라는 한 남자어린이(한국나이 19세)가 다라를 또 보기 위해 닐시까지 와서 다라와의 우정을 쌓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다라의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다. 연이은 캠프일정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던 다라는 밤새 고열, 복통, 설사, 그리고 메스꺼움에 시달렸다. 다라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캠퍼들, 볼он티어들, 관계자들이 다라를 걱정하고, 직접 죽을 만들어주거나, 간호해주기도 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라는 크게 감동했다. 하지만 ... 익숙하지 않은 맛의 죽을 먹고 다라는 설사를 시작했고, 여러 관계자들이 이를 보고 다라에게 ‘설사에 바나나지!, 설사엔 수박이지!’ 하며 각자의 노하우대로 여러 과일들을 먹였다. 이상하게도 그것을 먹고 난 이후로 병이 나아지기는 커녕 병이 더 심해져 결국... 캠프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중간평가

사앗사앗, 중간평가 일정

첫 째날	공항 마중
둘 째날	활동 사이트 둘러보기, 콜라바 관광
셋 째날	이사, 중간평가 발표
넷 째날	350PPM 캠페인, 공항 배웅
마지막 날	은솔 간사님 공항 배웅



5월 초, 한국으로부터 날아온 중간평가 일정을 받아보고 나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였다. 열흘 간의 말 그대로 ‘빡센’ 캠프 이후 주어질 단 사흘의 준비 시간 동안 350PPM 캠페인을 기획하고, 또 동시에 중간평가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중간평가가 단순히 한 시간을 때우는 그저 그런 발표가 아니라, 이곳 뭄바이에서 우리가 보낸 지난 두 달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두 달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고작 사흘 안에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었다. 캠프라는 일정을 앞에 두고서 중간평가에 대한 준비를 미처 하지 않은 것을 후회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캠프에서도 일찍 돌아오게 되고, 중간평가 일정 또한 비자 문제로 인해 미뤄지면서 이러한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덜어낼 수 있었다. 다만, 새로운 중간평가 일정은 현지 사무국의 인사 이동, 이로 인한 Secretary와 우리들의 이사, 350ppm 캠페인 일정 등 기존의 일정과 겹칠 수 밖에 없었다.





중간평가

중간 평가를 준비하며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활동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다. 한 곳 한 곳, 우리의 활동 사이트를 적어 보고 각각의 사이트에서 진행했던 활동들을 다시 떠올려보았다. 활동 지역 배경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작정’ 할 수 밖에 없던 시간들에 대해 아쉬움을 나누기도 했고, 때로는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진한 후회를 말하기도 했고, 또 그 동안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활동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런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고민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두 달 간의 활동 밑그림을 그려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사이트들에서 진행한 활동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나니, 하나하나의 사이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라온아띠’로서 보낸 날들 전반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어 볼 수도 있었다. 지금까지 생각보다 한 것이 없다고 느끼며 조바심을 느끼기도 하고, 단순히 재미있게 놀았다는 느낌을 말하기도 하고, 지난 두 달이 개인적 차원의 경험이나 성장에만 그치고 있다는 느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무엇인가를 해내고 싶은지에 대한 서로의 생각과 고민을 나누기도 했다. 중간평가를 준비하는 시간은 그저 PPT를 만들고, 발표 대본을 써내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 우리끼리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중간 평가 준비를 마쳤다. 한 번의 기다림이 더해진 후에야 한국에서 이은솔 간사님, 전대환 이사장님, 이동식 총장님까지 반가운 손님이 세 분이나 오셨다. 공항에 마중을 나가고, 함께 활동하는 곳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350PPM 캠페인의 순간을 함께 보내고,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고, 지난 두 달을 압축해 준비한 발표를 하고… 나흘 혹은닷새의 시간을 바삐 보냈다.



중간평가

우리가 보내온 시간들에 대해 우리 넷의 시선이 아닌 다른 시선에서 말씀해주신 이야기들도 들어 볼 수 있었다. ‘팀’끼리 해온 것들, 앞으로 ‘팀’으로 보낼 시간들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기회를 얻었고, 조금함을 느껴온 시간들에 대해서는 ‘배움’의 과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얻었다. 우리가 보내온 시간들에서 ‘진심’을 엿볼 수 있었다고, 칭찬도 해주셨다. 우리는 조금함과 부족함을 느끼느라 미처 보지 못한 것들, 우리가 앞으로도 잃지 않아야 할 진심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셨다. 다만 다른 일정들과의 조율이 이루어지지 못해 중간평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던 것과 발표를 미처 한국어로 준비하지 못해 온전히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전해드리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쉬운 것 같다.

중간평가를 통해 우리 팀은 한국에서 보내온 선물들도 받아볼 수 있었고, 손님들 핑계를 대고 한국 식당에 가서 오랜만에 찌개며 불고기며 한 상 가득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다.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불리는 것 만큼이나 우리의 생각도 불릴 수 있었던 것 같다. 라온아띠에 지원하며 써내려갔던 지원서를 다시 받아보고 서로 돌려 읽으며 ‘그 때’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느껴 볼 수도 있었고, 출국 전 캠프에서 썼던 편지들을 통해 팀원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앞으로의 날에 필요한 힘을 얻을 수도 있었다. 중간평가에서 우리는 지금껏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평가’ 받은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껏 해온 것들을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그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또 앞으로의 날들을 준비하는 기회를 얻은 것 같다.

삼오공 피피엠 캠페인





350PPM 캠페인 준비

350PPM 캠페인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나눔을 계속하던 중, 한때 묻혔던 “걷기대회”가 재조명을 받았다. 나눔을 통해 얘기해오던 나무심기, 재생노트 만들기 등의 개별 활동들을 걷기대회라는 큰 틀 안에서 모두 다 해 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큰 규모의 캠페인으로써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코디네이터와의 미팅 중 *Equal Streets에 대해 알게 되었고, 사전방문을 통해 그 거리의 분위기를 확인한 우리는 6월 5일 캠페인으로 걷기대회를 하기로 정했다.

350 관련 활동들은 부스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는데, 현실상황에 맞는, 가능한 활동들을 추려내기 위해 코디네이터와 또 한번의 미팅을 가지기도 했다. 나무심기, 재생노트 만들기, 페이스페인팅을 걷기대회 안에서의 메인 활동으로 가져가고, 그 외에 350 관련 사진들을 걸어두고, 걷기를 도와줄 발자국을 거리 바닥에 붙이기로 했다. Equal Streets가 5월까지만 한다는 사실도 이때 알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캠페인 날짜를 일주일 앞당겨 5월 31일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걷기대회 캠페인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걷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 걷다가 체험해볼 수 있는 350 관련 활동들을 통해 아직은 생소한 350PPM이라는 개념을 알아보는 시간도 가지게 해주고, “더 나은 세상으로 걸어가보자(Walk for a Greener Future)”는 의미 있는 메시지도 함께 전해주고 싶었다. 게다가 라온아띠만의 캠페인이 아닌, 여러 청년 봉사활동과 함께하는 그런 캠페인을 열어보기 위해, 기획단계부터 함께 할 수 있는 메인 봉사활동 그리고 당일 캠페인을 도와줄 봉사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노력했다. 뭍베이 YMCA가 우리가 가더라도 350PPM 캠페인을 지속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봉사활동 모집에 임했던 것 같다.

메인 봉사활동으로 마니쉬와 라훌이 함께 해주었는데, 발자국도 같이 만들고, 각 활동 설명 포스터에 들어갈 영어 문구도 같이 생각해보고, 캠페인 일주일 전 24일에는 함께 Equal Streets를 방문해서 부스는 어디에 설치할지, 각 부스간의 간격은 얼마가 적당한지 등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때 Equal Streets 기획자들을 만났는데, 거리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선 위원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획서를 준비, 제출했다.

*Equal Streets: 뭍베이 반드라에 위치한 도로 이름으로, 매주 일요일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 4시간 가량 이 도로에 차량 진입이 통제된다. 도로 위에선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는데, 배드민턴, 축구 등 운동부터 시작해서 요가, 색종이 접기, 체스, 연주회, 심지어 다양한 캠페인들도 접할 수 있다.



350PPM 캠페인

Making recycled note

3월 날시 캠프에서 진행한 바 있는 재생노트 만들기 활동을 이번 350PPM 캠페인에서도 하나의 부스로 진행했다. 봄베이 Y, 그 중에서도 우리가 머물렀던 International House, IH와 지금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Andheri Y에서 이면지를 모아 볼런티어들과 함께 재생노트 반제품을 만들었다. 재생노트 안에는 우리가 350PPM 캠페인을 알리고자 만든 포스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넣어 사람들에게 환경과 350PPM 캠페인에 대해서도 알리고자 하였다.

캠페인 당일, 부스에서는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직접 350이라는 숫자를 넣어 재생노트를 꾸미고, 재생노트 첫 장에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적는 것이 주요 활동이었다. 이 과정에서 버려지는 이면지를 다시 활용하는 '재활용의 가치'를 알리는 것보다도 재생노트 위에 그림을 그리는 Art class처럼 활동이 변화한 것 같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부스에 오신 부모님들 위주로 재생노트에 대한 설명을 더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었다. 또한, 재생노트 안쪽에 자신이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약속들을 적으며 일방향으로 진행되는 계도적 캠페인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끔 유도할 수 있었다.

Planting for Earth

이번 Equal Streets에서 열린 350PPM 캠페인에서 4번째 부스로 나무심기 (Planting for Earth) 활동을 하였다. 다 쓴 페트병을 잘라서 화분을 만들고, 그 위에 농장에서 구해온 비료와 흙을 넣고, 묘목을 심고, 마지막으로 350 도장이 찍힌 라벨지에 이름을 써서 페트병 옆면에 붙이는 것으로 활동은 진행되었다. 화분으로 페트병을 쓸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 컵을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나, 활동 같은 활동, 이 활동을 통해 자신이 뭔가를 만들었다는 느낌을 주기에는 페트병이 더 낫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다 쓴 페트병의 경우 YMCA 내에서 구할 수 있어, 캠페인 목적중의 하나인 캠페인과 YMCA를 연결시켜준다는 면에서 조금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캠페인 당일 비료, 흙, 그리고 묘목이 조금 늦게 도착하여 9시부터 활동이 진행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준비해온 90개의 페트병을 30분만에 모두 다 써버려 뒤늦게 온 사람들의 경우 아쉬움 속에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비료와 흙을 직접 화분에 담고, 자신의 손으로 묘목을 심을 때, 환경을 위해 자신이 뭔가를 기여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정말 좋은 활동인 것 같다는 의견을 몇몇 사람들로 부터 받기도 했다.



Walk for a greener future

1번 부스에서는 사람들에게 걷기 캠페인의 참여를 독려하여 스탬프를 찍어주고 중간 부스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진행하고, 반대편 5번 부스에서 출발해서 도착하는 사람들에게 팔찌를 나눠주는 활동을 하기로 되어있었다.

우선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며 부스로 다가왔고, 많은 사람들이 걷기 캠페인에 참여해주었다. 아이를 데려온 부모님들이 특히나 많은 관심을 보이며 아이들과 함께 참여했고,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는 젊은 친구들도 많았다. 또 이퀄스트리트에 돌아다니던 기자들도 들러 캠페인의 취지와 라온아띠라는 그룹에 대해 묻기도 했고 참여는 하지 못하더라도 한 번씩 설명을 듣고 가는 사람들도 많았다. 영어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발런티어들이 힌디로 이야기해주기도 하면서 참여를 독려했다.

그런데 문제는 1번 부스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5번 부스에서 출발해서 도착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1번 부스에서 출발한 사람들도 자꾸 1번 부스로 다시 돌아와 팔찌를 받아갔다. 처음에는 이것이 우리가 설명을 제대로 못하거나 사람들이 이해를 잘 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5번 부스에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었다. 라온아띠 멤버가 4명이었기 때문에 5번 부스는 발런티어들만 있게 되었는데, 시작할 때 우리가 각자의 부스에 신경 쓰느라 바쁘고, 발런티어마다 도착시간이 다 달라 역할 분배를 확실하게 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또 부스 간에 거리가 멀어 빠르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되어 걷기 캠페인이 100%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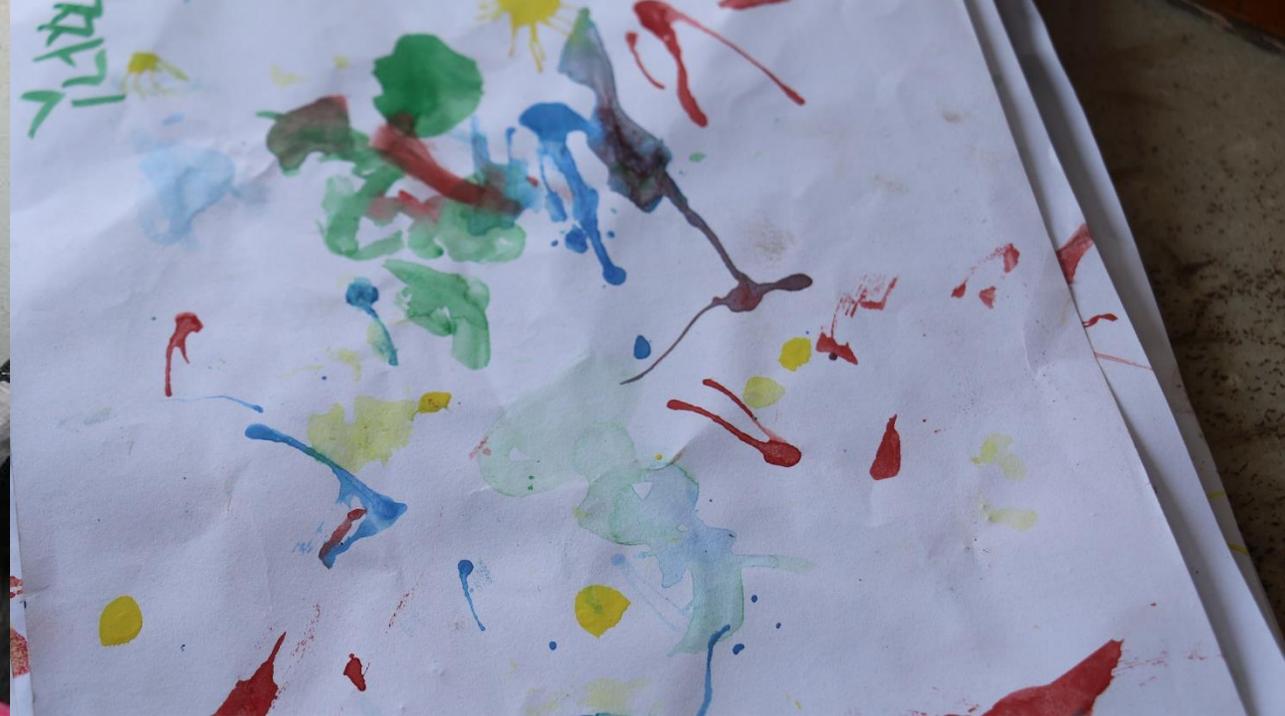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듣고 또 바닥에 붙어있는 문구들을 보면서 걸었다는 데에는 정말 큰 의의가 있었던 것 같고, 생각보다 우리의 캠페인에 많은 관심을 보여 좋았다.

Face painting

이퀄 스트리트에 온 많은 사람들에게 350PPM 캠페인을 가장 빠르고, 쉽게, 그리고 눈에 띄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페이스 페인팅을 하면 하는 부스를 놓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페이스 페인팅 후 페이스북의 '350PPM FOR MUMBAI' 페이지를 좋아요 누르면 'EARTH NEEDS ME'가 새겨진 팔찌를 나누어주기로 했다. 캠페인 당일날 약속한 볼런티어들보다 더 많은 볼런티어들이 이퀄스트리트에 왔는데, 우리가 원래 페이스페인팅에 부스에 배치한 볼런티어보다 새로 온 다른 볼런티어들이 더 열심히 페이스페인팅을 했고, 하는 과정에서 350PPM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캠프 때 350PPM 세션에서 들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열심히 설명해주기도 했다. 덕분에 더 많은 이들에 350PPM에 대해 홍보할 수 있었다.

아쉬운점은 각자 오는 시간이 제각각이어서 역할 분담을 제대로 못한 탓에 많은 볼런티어들이 일손이 필요한 부스에 가지 않고 페이스페인팅 부스 뒤에 모여 장난을 치거나, 친목을 도모하기도 했다. 그리고 페이스 페인팅 활동이 끝난 후 우리가 빌린 테이블보가 더러워졌고, 붓을 씻고 남은 물을 처리하는 부분에서 공공화장실이 없어 쓰레기통 밑에 두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점에 대해서 인도 친구들에게 괜찮냐고 물어봤을 때 모든 친구들이, 심지어 코디네이터도 괜찮다고 했지만, 찝찝함이 남는다.



도비가트

5월 넷째 주에 진행되기로 했던 중간평가 일정이 일주일 뒤로 미뤄지면서, 비어버린 시간 동안에 이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도비가트 집 방문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도비가트 센터에 대한 의문들을 해결하고 실현 가능성을 묻는 자문 단계가 먼저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는 도비가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진슨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어느 정도 우리의 의문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일단, 아이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이유는 이 지역에 머무는 것이 일시적인 정착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이 센터의 대상이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이 지역 모든 아이들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오더라도 센터에서 교육받을 수 있어 새로운 친구들이 계속해서 오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 또한 도중에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공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모두 받아주고 있다고 했다. 진슨은 이런 설명을 하며 집 방문을 통해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센터에 오게 하고 마을 아이들에게 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진슨의 동의를 받고 우리는 바로 도비가트 집 방문을 준비했다.



도비가트

일단, 아이들의 집을 방문할 때 한국 음식을 준비해서 가져가면 문화 교류의 효과도 얻을 수 있고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느낌 또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또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만들었던 미술 작품 뒤에 센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적어 책받침으로 만들어 나누어주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됨과 동시에 센터에 대한 홍보 또한 할 수 있어 함께 준비했다. 우리는 준비 과정에서 현지 청년들을 발런티어로 포함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이면을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혹시나 우리가 가고 난 이후에도 청년들과 이 센터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캠프에서 만난 Ivan, Vaishnavi, Taikhum이라는 도비가트 주변 지역 친구들과 12기와 많은 활동들을 함께했던 든든한 Manish와 함께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로 했다. 한국 음식 메뉴는 감자전, 맛탕, 화채였고, 아이들과 함께 프록터 ymca 안에서 만들었다. 계획했던 것 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 더운 날씨에 힘들긴 했지만 나름대로 맛있는 음식들이 완성되어 약 50인분 정도를 들고 도비가트로 이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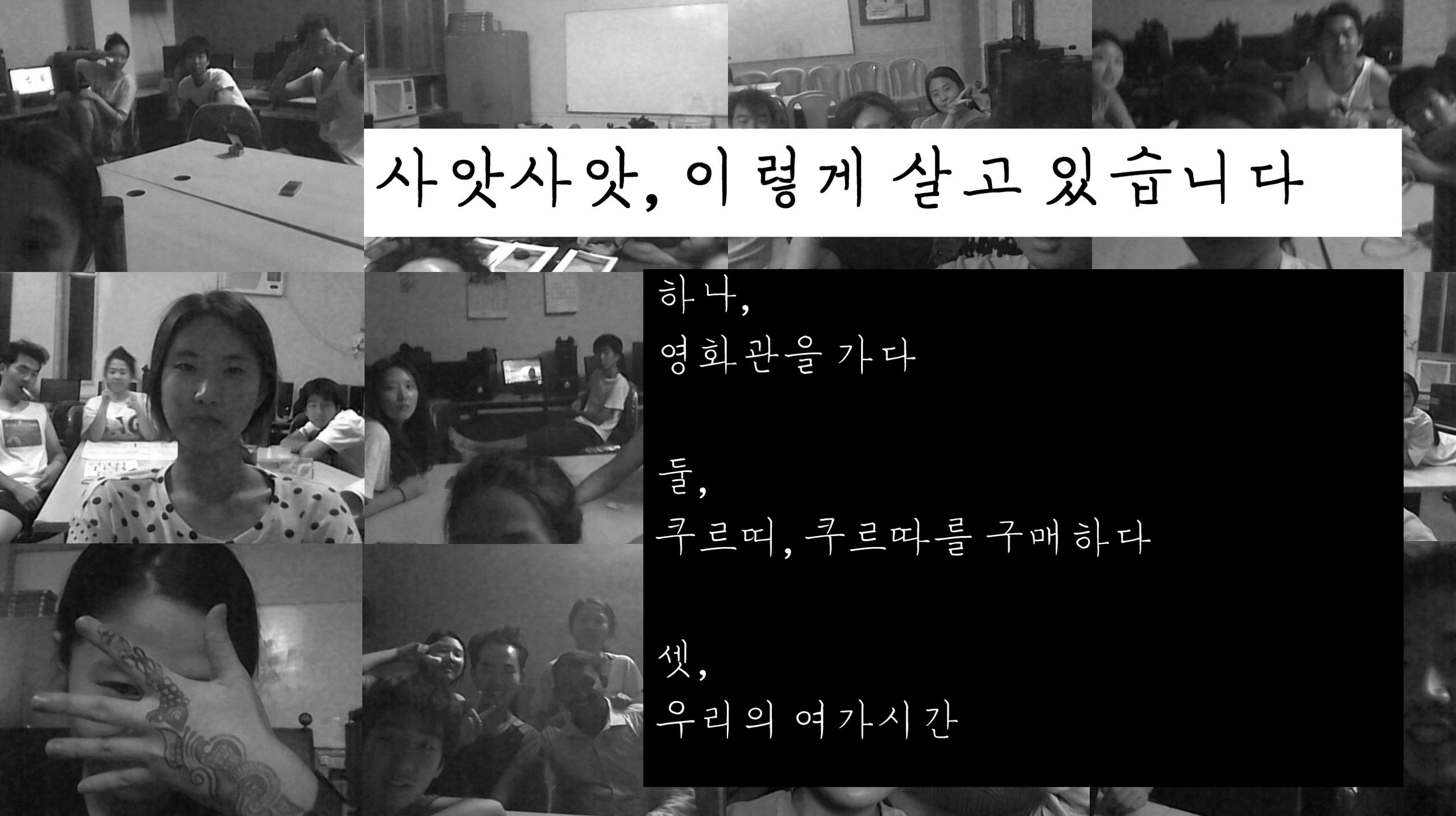
그런데 문제는 도비가트로 이동해서 발생했다. 우리는 우리가 센터로 오면서 보는 길거리의 집들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충분히 아이들의 집들을 모두 방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센터의 선생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집들 외에도 먼 곳에서 오는 아이들도 많아 방문이 힘들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우리가 현장에 계신 분과의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였던 것이다. 기획 과정에서 담당자뿐만 아니라 현장에 직접 계신분과도 이야기를 나누며 준비했어야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다 보니 그 과정이 누락되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결국 우리는 준비해간 한국 음식과 책갈피를 센터에서 나눠주는 방식으로 바뀌야 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발생했다.



도비가트

우선 친밀함을 형성하기 위한 도구 중 하나였던 한국 음식이 주가 되어 목적이 전도되어버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가족과의 대화는 물론이고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복잡하고 힘들어 음식을 먹고 있는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어 아이들과도 대화를 제대로 시도하지 못했다. 또 발런티어들에게 도비가트 마을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아이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음식 만들고 바쁘게 나눠만 주다 가게 되어 정말 큰 아쉬움을 낳았다. 혹여나 우리가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이 가난한 사람에게 적선하는 모습처럼 비춰졌을까 우려되는 마음 또한 가득했다. 그래도 이 날의 의도치 않은 한국 음식 파티로 얻게 된 긍정적인 것은, 그 동안 아이들이 센터에서 시끄럽다며 불만을 제기하던 마을 사람들과 친밀함을 형성했고, 센터에 대한 우호적인 시선을 얻어냈다는 데에 있는 것 같다. 센터를 둘러싼 집들의 아이들 역시도 우리 이름을 부르며 함께 놀자는 친구가 되었고, 어른들도 우리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를 건네게 되었다. 또 아이들이 한국 음식을 맛 볼 수 있는 문화 교류의 기회도 갖게 된 것 같아 이러한 것들은 긍정적인 결과물로 바라보고 있다. 다만, 센터를 둘러싼 집들의 아이들과 친해진 것은 좋으나 그 아이들이 센터에 오는 친구들과, 즉 판자촌에서 오는 아이들과 절대 어울리지 않고 센터 안으로도 들어오려 하지 않아 센터 외부에 노력을 들이는 것은 이번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또 대상을 넓히고자 하는 센터의 목적은 알겠으나, 센터가 너무 작고 좁아 그 안에서 우리가 많은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번 활동으로 철저한 사전 준비와 기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준비가 부족하면 우리가 의도했던 방향과는 정반대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도 이 날 이후로 사람들의 환영과 아이들의 출석률이 는 것을 보아서는 적어도 우리가 그 날,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려는 동정심이 아니라 더 친해지고 싶은, 더 마음을 나누고 싶은 우리의 진심에서 준비했다는 것이 조금은 전달되지 않았나 싶다.



사앗사앗,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
영화관을 가다

둘,
쿠르띠, 쿠르띠를 구매하다

셋,
우리의 여가시간



하나, 영화관을 가다

볼리우드의 중심, 뭄바이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지껏 한 번도 영화관에 가지 못했다가..(바빴다...정말..) 이번 달이 되어서야 다함께 영화 관람에 도전했다!! 이곳에서 맛 본 영화관은 ...그야말로 천국이였다.... 뒤로 젖혀 편안하게 누워서 볼 수 있는 의자에....시원한 에어컨...그리고 영화관에서 파는 다양한 음식들과 자리로의 배달 서비스까지.....!!!한국의 VIP 좌석보다 훨씬 좋은데, 한국 돈으로 4000원도 되지 않는다....!!다들 영화관에 훌쩍 반했달까! 힌디를 전부 알아듣진 못해도 마냥 즐겁다!! 앞으로도 많이 애용할 예정!



둘, 쿠르따 쿠르따 입기

인도의 전통의상 중 사람들이 많이 입고 다니는 옷 중에 쿠르따 (여자는 쿠르띠)가 있다. 매번 보면서 우리도 하나 사고 싶다! 했는데 중간평가를 계기로 모두 사서 맞춰 입었다. 맘에 드는 쿠르따를 사기 위해 다들 열심히 찾고 또 찾았다는!!!! 우리는 나름대로 가격도 괜찮고 마음에 드는 쿠르따를 잘 샀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중간평가 기간에 함께 쇼핑을 갔던 리파엘이...가격을 4분의 1 가격으로 훌쩍...내려잡는 모습을 보고...반성하며 다음 쇼핑을 위한 강한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셋, 우리들의 여가시간

에프 / 여가 시간이 생기면 우리는 .. 일단... 먹을 준비가 항상 되어있는 두 사람과... 꼬시면 넘어오는 한 사람과.... 근육에 집착하는 한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다 모양(22)과 아 모균(26)은 “먹을래?”, “응, 당연하지”를 반복하고 있고 디 모양(23)은 “아, 다이어트 해야되는데...”를 외치며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사 모균(24)은 옆에서 가슴을 두드리며 근육을 확인하는 상황이 매번 반복된다.

도 / 사친과 디파는 요즘 안데리 ymca안에 있는 gym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특히 사친은 요즘 몸 만들기에 정신이 없는데, 인터넷에서 운동법과 식단까지 알아보며 집중하고 있다. 밥도 평소의 두 배씩 먹으며 몸을 키우려고 하고 있다. 매일 가슴을 두드리며 근육을 확인하는 장면을 들켜 팀원들의 놀림도 받고 있다. 하지만, 팔에 정말 근육이 붙어 아자드가 보고 자극 받아 본인도 운동하러 가야겠다며 말뿐인 다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친이 최근 본 사주의 이번 달 운세에서 무리한 운동과 과식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 많이 놀라고 당황한 듯 하다..!@

편 / 여가 시간에 쓰기 위해 우노라는 원카드와 비슷한 게임카드를 샀는데, 카지노에서 많이 이뤄지는 게임으로 변형해... 도박을 하고 있다...!!! 내기는 멘토스...!!! 지금까지의 전적은 따리가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우리의 도박은 계속된다.....☆

짜르 / 따리가 뿌리염색을 하는 김에 사친도 난생 처음 첫 염색을 해보려 했지만, 염색약 선택의 실패로 그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따리는 의도치 않게 투톤이 되었다.

개인에세이
오월, 네 생각





5월의 사친

#1. 4월과는 다른 사친
뒤늦은 후회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관계면에서나 역할면에서 매순간 최선을 다해서 임했던 것 같다.

#2. 사친의 5월 소감
이번달에는 특히나 굵직한 활동들이 많았다.
캠프, 중간평가, 350PPM 캠페인...
함께 어울리고, 준비하고, 기획하다보니 뭔가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 같다.

#3.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캠프에서 내 팬클럽이 생긴 것이다.
나와 춤을 같이 추기 위해, 나와 사진을 같이 찍기 위해,
나와 점심을 같이 먹기 위해서 다투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기분이 좋기는 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참 난감하다.
나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4.
중간평가때 이은솔 간사님으로부터 내 라온아띠 지원서를 받았다.
내가 썼던 글을 읽어나가면서,
현지 활동을 하면서 조금은 잊고 있었던
라온아띠에 지원하게 된 동기,
스스로에게 했던 다짐들을 다시금 돌아보았다.
처음 내 마음가짐은 어땠는지, 아직도 변함없는지, 혹시 나태해지지는 않았는지...



5월의 아자드

하나.
세상이 돌아가는 문법은, 하나가 아닌 듯 하다.

둘.
마음 가는 것들로 꽉꽉 채워진 진열대와 어둡지도 밝지도 않게 그저 편안한 조도로 사람들을 비추는 조명, 아주 춤지는 않지만 바깥의 더위를 한 번에 잊게 해줄 만큼의 절묘한 온도로 맞추어진 세상. 거기 한참을 앉아있었다. 금속탐지기와 유리 벽 바깥의 세상은 보이지도 않았다. 그냥 말 그대로 편안한 곳이었다. 나는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믿었다. 바깥 세상에 나오자마자, 나는 내가 살던 세상이, 내가 자연스럽다고 믿고 있던 일상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

셋.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가능성의 문이 닫혀버리는데, 나는 습관적으로 '안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선을 긋고 있었다. 계속 계속. (어려워 보이지만) 해 볼 수는 있을 거야.

넷.
흘러 들던 노래가 있다. 어쩌다 보니 그 노래에 푹 빠져버렸다. 수 십 번쯤 듣다 보니 가사가 들렸다. 흘러 들은 노래가 아니었다.



5월의 따라

#1. 사소한 것이라도 발걸음을 돌릴 수 있기를.
작은 목소리라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짧은 시간이라도 온전한 나를 담아낼 수 있기를.
매 순간의 감사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서로 다름을 느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6월의 나는, 그런 삶을 꾸려나갈 수 있기를.
☺☺☺☺☺

#2. 아프고 힘들 때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아플 때 마다 옆에 와서 챙겨주고 대신해주는 팀원들
덕에 금방 털어내고 일어날 수 있었다.
나도 누군가의 곁을 따뜻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언니, 오빠들 ..the love.....♡)





5월의 디파

ARRRRE!!!

그리워해요

#사앗사앗

#오월

#사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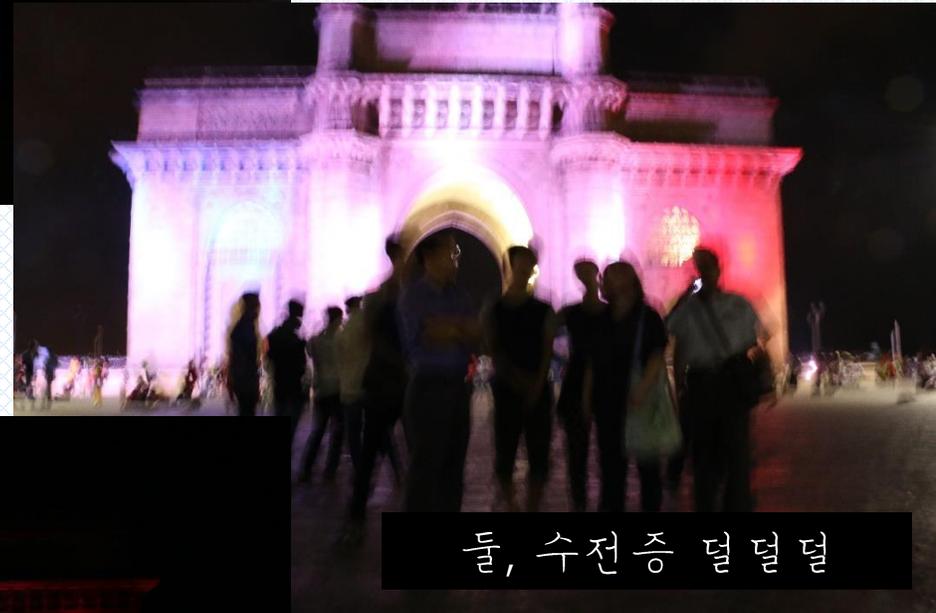




얼굴물어주기
(누가 누굴?)



하나, 사람 어디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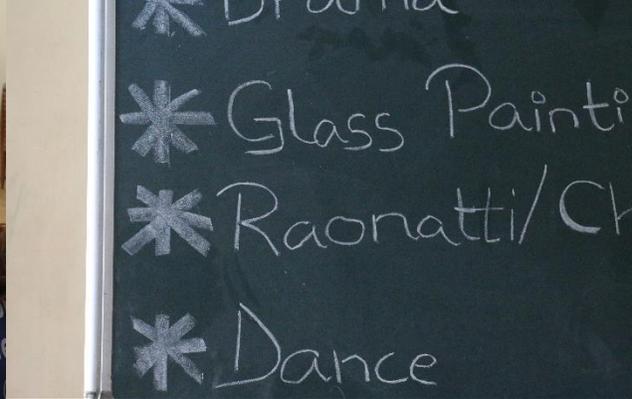


둘, 수전증 덜덜덜



셋, 여기보세요!

게이트웨이오브인디아 앞
야경 실패 샷



데이 캠프







삼오공캠페인

초...초점?





암치 몸바이!

